’23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3-12	12.20	회의실	11/13	4	1	16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고아라·곽선희·김안나·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이상길·이숙희·조경완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4	6	1	1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재건축, 달빛고속철도 관심 지속 필요	<뉴스데스크> 영호남 14개 지자체 '달빛철도법 국회 통과' 촉구(1.3),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폐기 수순(1.8),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적극 나서야(1.9) <뉴스투데이> 광주시,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재공모' 수용 불가(1.11), <뉴스데스크>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재공모해야(1.9) 등 방송 조치	'23.12.
〃	방직공장 부지 근대 산업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있는 곳이니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간이 되도록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복합 쇼핑몰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1.2), 속도 내는 쇼핑몰 3종 세트(1.9), <뉴스투데이> 광주시-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 개발 협약 체결(12.22) 등 방송 조치	〃
〃	재미있는 광주를 알리는 다양한 소식 바람	<뉴스데스크> 아시아문화전당, "도시문화를 체험 콘텐츠로"(1.5), <뉴스투데이> 광주 송정역에 미디어아트 설치(1.1), <본방을 보자> 도심 속 힐링 스팟(12.26) 등 방송 조치	〃
〃	<시사 용광로>, 표나 시각 자료 활용하며 내용 이해 도움이 될 것임	<시사 용광로> 총선과 지역 민심의 향방은? 편 그래픽(1.4), 내년 총선 앞둔 여야 상황은 편 표(12.21) 활용 등 방송 조치	〃
교양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대화가 부족한 시대에 좋은 프로젝트임. 지속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광주 서구편(12.30) 등 방송 조치	〃

	적인 시행 바람		
〃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방청객 뒤 조명이 시선을 분산시켜 집중력 방해함	편성 책임자와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27)	〃
〃	<광주MBC 보다>, 음식점 소개 시 홍보 느낌 들지 않게 제작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27)	〃
〃	<본방을 보자>, 우리 지역 소식 다양하게 전달 바람	<본방을 보자> 사랑의 온도탑(12.28), 우리 지역 따뜻한 이야기(12.26), K-바이오산업을 이끌다(12.21), 새해 체육센터의 모습(1.3)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등에 대한 동아리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 바람	<본방을 보자> 초대석 청년 일자리 정책 DNA+US, 청년뉴딜로 프로젝트(1.10)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리포터 액션이 크고 산만해 가벼운 느낌임	편성 책임자와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27)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 난장>, 출연자의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곡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음	편성 책임자와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27)	〃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유의 사항 준수	편성과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27)	〃
총 건수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재건축, 달빛고속철도 관심 지속 필요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재건축 추진 상황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방직공장 부지 근대 산업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있는 곳이니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간이 되도록 관심 필요	방직공장 부지 활용에 대해 꾸준한 보도를 하고 있으며,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 보도하겠음	○		
〃	재미있는 광주를 알리는 다양한 소식 바람	Y벨트 등 꿀잼도시 광주 조성에 대한 보도 지속해 가겠음	○		
〃	<시사 용광로>, 표나 시각 자료 활용하며 내용 이해 도움이 될 것임	토론 프로그램 그래픽 활용 강화에 대해 제작진의 관심을 높여달라고 주문하겠음	○		
교양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대화가 부족한 시대에 좋은 프로젝트임.	올해 총 10회를 시행하며, 내년에도 방법을 강구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지속적인 시행 바람				
〃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방청객 뒤 조명이 시선을 분산시켜 집중력 방해함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음	○		
〃	<광주MBC 보다>, 음식점 소개 시 홍보 느낌 들지 않게 제작 필요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제작 시 더욱 유의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우리 지역 소식 다양하게 전달 바람	다양한 지역 소식을 발굴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등에 대한 동아리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 바람	뉴스, 라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계속하겠음	○		
〃	<본방을 보자> 리포터 액션이 크고 산만해 가벼운 느낌임	밝고 활발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것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겠음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 난장>, 출연자의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곡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음	재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음악에 집중하도록 의도한 것이나 장단점에 대해 재점검하겠음	○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유의사항 준수	선거방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체 교육을 시행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12월)

일 시		2023. 12. 20.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고아라, 곽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이상길, 이숙희, 조경완(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계시는 사장님, 한 달 만에 뵙는데 반갑다.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다. 자연스럽게 한 해를 정리하는 위원회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방송 언론도 분주한 한해였다. 가뭄이 심했다가 단비가 내려 풀렸고, 이상기후 폭우 폭염이 있었다. 광주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은 최근에 진척이 되어 가고. 대형 유통시설도 진행되고 있다. 명작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지난달 김치를 주제로 한 큰 행사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 김낙곤 사장 :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다. 코로나 이후 봄에 영산강 자전거 대회를 개최했다.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를 4년 만에 열었고, 나눔과 연대의 김치대전 등 큰 행사 세 개를 구성원들과 함께해냈다. 위원님들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내년은 창사 60년이다. 공영방송 60년 뜻깊은 해를 맞는데, 시민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전달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좋은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기획해보도록 하겠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레드디쉬>로 전국 MBC 계열사 작품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양림동 오픈스튜디오 제작 후원 조인식을 남구청에서 가졌다. 라파 지원을 받은 <한민족의 소리> 제작을 마쳤고,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타운홀미팅은 남구와 동구 녹화와 방송을 했다. 조용필 공연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으며,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 광주 편, <테마기행 길> 나주 편 제작 중이다.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획물 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전남 농촌지역 치매 노인 현실을 4회 연속 집중 조명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남 농촌에서 치매 노인의 안전이나 농촌 어르신 몸은 무겁고 병원은 먼 현실, 농촌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 중요성 등을 취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나 여러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갖고 있다. 광주MBC 뉴스 채널은 광주·목포·여수 공동으로 MBC 로컬 광주를 준비해서 3주 정도 해오고 있다. 구독자를 늘려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 뉴시스, 무등일보, 전남일보와 함께 신년 특집 여론조사를 경쟁이 치열한 8개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1월 1일 저녁 방송 예정이다. 광주MBC 뉴스 채널 구독자 10만 명 돌파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MBC 독자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서울 MBC 뉴스 채널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뉴스탠바이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여론조사는 몇 번 하나.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1월 1일 자와 경선이 치열한 1월 말 예정하고 있는데 광주·목포·여수가 함께 할 예정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강필오 위원 : -광주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는 5개 구청장과 구민들의 소통이 뜻깊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구별 특징 있는 사업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우리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로 촉발된 대화가 부족한 시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해주길 바란다.

-11월 22일 5.18민주광장에서 특별생방송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있었다. 직접 참여하여 김치도 담가 보았다. 여럿이 함께 모여 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행사로 만들어주셔서 의미 있고 즐거웠다.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프로젝트 치르느라 고생하셨다.

-<테마기행 길> 12월 11일 방송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산 미래 유산 투어'라는 주제로 최주봉 씨가 진행해 주셨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산 중앙공원, 철도 역사와 중구의 과거 모습까지 볼 수 있는 박기종기념관, 부산 시민들의 오랜 추억을 간직한 사진관,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 부산에 단 한 곳 남은 '고갈비' 식당, 밀다원 다방을 모티브로 한 카페, 범일동 '재봉틀 거리', 부산진시장, 초량돼지갈비 골목을 돌아보며 부산의 역사와 맛, 멋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 고아라 위원 : -<시사 용광로> '광주 복합쇼핑몰 어디까지 왔나?'를 시청했다. 이번 광주 복합쇼핑몰 세 군데의 전체 부지는 방직공장 9만 평, 어등산 13만 평, 광천동 3만 평 이렇게 광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복합쇼핑몰 3개 안이 광주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떤 가치와 철학을 담을 것인지는 각 부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다. 특히 방직공장 부지는 우리 근대 산업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있는 곳이니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자의 차분한 진행과 출연자들의 탄력적인 토론이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했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회차마다 장소를 조금씩 바꾸어 무대디자인이나 조명 등 매회 신선한 느낌을 준다. 특히 매주 초반에 나오는 광주 곳곳의 스팟 영상이 광주의 모습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해준다. 중간중간 아티스트가 멘트를 해줘 연주를 감상하는 중에 환기가 되었다. 다만 특정 부분만 뚝 하고 잘리는 느낌이어서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해 보인다. 첫 번째 등장한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 알고 있던 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곡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가사를 동시에 띄워준다면 곡을 감상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자가 아티스트와 인터뷰할 때 유쾌하고 유연하게 진행해 주어 보는 시청자로서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 곽선희 부위원장 : -<시사 용광로> '광주 복합쇼핑몰 어디까지 왔나?'에 관한 의견이다. 전남·일신방직 복합쇼핑몰 완공 2027년, 어등산 복합쇼핑몰 2030년, 신세계백화점 확장 협상이 올해 안에 기본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 속에 진행된 상황인 만큼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염려된다. 2년 넘게 진행되어왔던 사업이 신세계백화점 확장으로 갑자기 전환되어, 사업추진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신뢰와, 빠른 진행보다는 차분한 계획과 건축물에 따라 완공사항 변동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54.45% 공공기여 제도는 협상을 잘한 것 같지만 광주광역시 치적에 몰입된 것 같은 김광진 부시장의 대화가 염려되었다. 공공기여의 부작용으로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분양가도 올리게 되어 시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과가 미치는 부작용 염려에 대한 노경수 교수 지적에 광주시민으로서 충분히 공감되었다. 전남방직, 일신방직의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 부분은 광주를 대표하는 공간의 역사성, 특성화에 국제 현상 공모 등 역사문화공원으로 전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유원지 등 공공기여 상업시설 진행과 관광, 숙소 등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단독 업체이므로 회수 부분도 염려된다. 유원지 시설로의 공공기여도가 낮아 더 많은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자 의도 아닌 시민 처지에서 고민과 염려가 된다. 공급과잉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증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 계획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복합쇼핑몰은 전국을 상대로 한다며 대전과 비교하던데 지역의 위치도 고

려하지 않고 너무 장밋빛으로 희망하는 것 같아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의 윈윈과 상생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진행자이신 한선 교수의 진행 방법은 주제에 맞게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본방을 보다> 12월 5일 뉴스본방에서는 프로축구 광주FC 소식을 전했다. 열악한 재정과 운영 등 원인으로 최하위 전력에서 K리그 3위, 구단 역대 최고 순위 소식이 반가웠다.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강한 의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된다. 2024년에는 강한 견제가 예상된 만큼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회, 지자체, 기업들의 적정한 후원 등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이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하게 되는데 시민들 휴식을 위한 친화 공원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달빛고속철도가 일반철도로 변경 시 건설비용 및 광주 대구 철도건설 예타 조사 면제로 2조 6천억 원가량 비용이 절약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동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언론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길 바란다. 12월 6일에는 서구청 직원의 주정차 단속 위반사항 불법 조작 면제기록으로 억대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당한 청탁을 한 전현직 지방의원의 사고방식에 허탈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8주년 기념으로 창제작 작품 공연의 ACC 콘텐츠 개발 및 작품 제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콘텐츠 개발 지원은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애니메이션, 판소리, 창작극 계획도 우리 음악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흥미가 유발될 듯하다. 히트작인 '범 내려온다'라는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 현대적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K컬처의 히트작이라 한다. 김종원 학예연구사 소개 시 학예사 설명 모습을 3분의 1정도 할애하지 않고 작품 하는 모습을 전체화면으로 확대했으면 화면 몰입도가 더 높을 것 같았다. 월간 본슐랭 가이드에서 12월 주제 겨울 편에 겨울 제철 수산물 소개 시 광주 유촌동 조개구이 무한리필 조개구이 맛집, 신용동 제철 횟집 편에 겨울 대방어가 제일 맛있다며 숙성 후 훨씬 감칠맛이 난다고 했다. 화면구성이 편안하게 느껴졌고 먹고 싶다는 욕구 느껴졌다.

○ 김안나 위원 : -광주문화방송 뉴스 '한 걸음 더'에서 12월 5일~8일 농촌 치매 노인의 현실이라는 기획보도는 현재 직면한 농촌 치매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시급한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좋은 보도였다. <광주MBC 보다> 프로그램 중에 음식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섭외를 하나? 다른 지역은 골목 맛집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소개하는 곳들은 마치 음식점 홍보 같은 느낌이 들었다. 특정 음식점을 광고하는 느낌의 방송이 아니길 바란다.

○ 김영신 : -<본방을 보자>는 지역 현안의 뉴스 및 생활정보 등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쉽게 알려주는 생방송 라이브 쇼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 평소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12월 19일 방송에서는 지역 뉴스 소식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무안군이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는 소식과 광주공항이 이전되면 그 부지를 광주 숲으로 조성하는 '백만 평 광주 숲'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다른 지역 소식으로 춘천의 '리어카를 고쳐드립니다', 강원영동의 '정선의 대표 명물을 찾아서!', 울산의 '방어진 가자미 먹으러 가자미'를 주제로 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연말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훈훈한 소식, 다른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정보 등 여러 고장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 주어서 좋았다. 우리 지역의 소식도 다양하게 전해주길 바란다.

○ 송경용 위원 : -광주MBC 뉴스데스크 1천 명 시민들이 담근 1만 포기김치 취약 계층에게 전달 뉴스 관련이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며 김치를 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으로 나눠 줬다. 시민 1천여 명이 모여 담근 김치 1만 포기는 광주·전남의 취약 계층에게 전달됐다. 함께 모여 김치를 만들고 이웃과 나누는 김장으로 따뜻함이 커지고 취약계층에 나눠주니 뿌듯하고 이러한 봉사활동 기회가 많아져 취약계층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

움이 되면 좋겠다. 공격축구로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 창단 12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 기업구단에 비해 열악한 시민구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값진 결과인데,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겹경사를 일궈냈다.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시즌 초부터 3위를 목표로 자신과 선수단을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이제는 훈련장 확충 등 부족한 축구 인프라 구축에 구단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광주FC 감독님 말처럼 광주 시민들이 더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광주에 축구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광주 여행자의 집을 아십니까?' 뉴스를 보니 광주 동구에는 여행객을 위해 마련한 '광주 여행자의 집'이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행객이 더욱더 자유롭게 광주의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짐을 보관해주고, 광주의 맛집과 카페, 관광코스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 불필요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무료로 음료와 간식이 제공되는 여행 쉼터는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안겨준다. 지난해부터 입소문을 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5만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한다. 광주 여행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광주 시티투어버스 대신 여행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시티투어버스'가 내년부터 광주 도심을 누빈다. 급변하는 관광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맞춤형 관광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산업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기준으로 발전하여 노잼 광주가 아닌 유잼 광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광주를 알리는 다양한 소식을 바란다.

○ 심상돈 위원 :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남구민이 묻고 김병내 구청장이 답하다를 시청했다. 남구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문과 응답으로 좋은 구성이었다. 토론자와 남구 구민인 방청자의 자리 배치가 토론을 위한 자리 배치보다는 방송용 자리 배치로 질문과 응답 시에 누군가는 토론자의 정면이 아닌 후면을 볼 수밖에 없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또한 방청객 뒤의 조명이 토론자에 집중되어야 할 시선을 분산시켜 집중을 흐리게 한 점이 아쉽다.

-<무등산을 사랑하자> 2023년 12월 캠페인 '당신에게 무등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편에서는 커피농장의 '나에게 무등산은 희망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도전', 영화제작자의 '나에게 무등산은 예술의 영감을 주는 산'입니다 등 모두 좋은 내용이다. 특별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보통의 일상'에서 무등산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를 첨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다.

○ 오광호 위원 : -<시사 용광로>에는 김광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광주 복합쇼핑몰의 진행 상황과 소상인과의 상생 대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은 신세계백화점 확장 3만 평, 옛 일신/전남방직 부지 9만 평에 더현대 건립, 어등산 관광단지 13만 평에 스타필드 건립이 있다. 광주의 경제 규모가 이 3개의 복합쇼핑몰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신/전남방직 개발사 측으로부터 얻어낸 공공기여금 5,899억 원이 오히려 소비 계약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어져 지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염려되기도 한다. 공공기여금을 어떤 곳에 얼마만큼 사용할지를 두고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토론을 시청하면서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광주시에 미칠 파장들을 잘 알 수 있었다. 현재 광주시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주제인 만큼, 표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면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광주 볼거리 소개 코너로 12월에 개최하는 ACC예술극장 현대 무용극, 동구 대인동 아트 페어, 괴물, 너와 나, 조이랜드 등 광주극장 상영작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광주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꾸준한 소개가 있으면 좋겠다. 전남대학교 창업 동아리인 '창업 아지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청년들은 요즘 취업에 대한 문턱이 높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다 보니 창업에 대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창업 아지트'는 창업에 대한 지역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아리이며,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이 멘토로 활동하

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등에 대한 동아리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 이상길 위원 : -<본방을 보자> 2023년 11월 29일 지금 이 시각 달려 본방에서는 시내버스 빈대 방역 현장을 보여줬다. 아직 광주에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먼저 방역 현장을 보여줘서 안심시켜주어 좋았다. 또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어 나중에 혹여나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 듯하다. 유튜브 영상으로 10분 30초 부근, 뉴스보다 조금 덜 형식적인 느낌이라 그런지 몰라도, 리포터가 액션이 너무 크고 몸을 너무 움직여서 살짝 산만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10분 50초 부근에서는 뒷부분 월간 본슐랭은 일반인 인터뷰 때 자막을 달아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 인터뷰인데 자막이 없다. 아무래도 숙련된 기자나, MC보다 발음이 부정확하므로 자막이 있다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13분 30초쯤에는 카메라가 너무 흔들리고, 안정적이지 못하게 움직였다. 인터뷰 장면이라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장면인데도 심하게 흔들렸다. 월간 본슐랭 가이드 11월 갈비는 아까 말했듯이 인터뷰에서 자막을 달아주어 보기 편하였다. 전형적인 갈비가 아니라, 갈빗살을 이용한 색다른 갈비의 종류에 대해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 22분 40초 부근, 이색적인 음식이라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를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음식인지 설명해줘서 훨씬 이해도 잘되고, 맛이나 형태를 예상하며 볼 수 있게 돼서 좋았다. 실제로 MC가 방문한 후, 말해주는 후기 덕분에 훨씬 신뢰도가 올라갔다. 실제로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오픈 채팅을 이용하여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서 참여도도 올라가고,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좋았다.

○ 이숙희 위원 :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무돌길 첫 시작점인 각화동이다. 그곳을 가꾸는 분이 계신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애쓴다, 고생한다고 얘기해주면 행복하겠는데, 허락은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는 것 같다.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 모래성을 완성한 아이의 행복처럼 진짜 배려의 숨결이 녹아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인데 숨어 있지만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다.

-특집 다큐 <우리도 광주처럼>이 인상 깊었다. 정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우리는 해냈다. 아직도 우리는 아프다. 광주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와 연대의 구심축을 만들어 가는 힘! 광주인권상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구촌 각각의 인종과 종교! 그리고 여성! 또 사상. 이 모든 것들과 세계 곳곳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광주 정신을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자세로 옷깃을 여미게 되었다.

○ 조경완 위원장 ; -사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의 공정성 방송을 위한 유의 사항의 기타 안건으로 제출했다. 허위 논평, 보도 금지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의 불법 이용 제한, 후보자 비방 금지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니 여기에서 마치겠다. 11월 회의 의견제시 사항도 꼼꼼하게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 이것으로 12월 시청자위원회 마치겠다.

끝.